

## 이동성, 그리고 사민주의\*

이동전화의 사회적 함의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

이동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소통을 가능케 한다는 뜻에서 이동성의 통신매체이며, 또한 개인적 통신수단을 넘어, 사적 공간을 의미하는 개개인의 독립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소통행위의 영역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에서 사민주의적 매체이다. 이동전화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이동성과 사민주의적 성격을 우리는 대체로 이동전화의 기술적 특성, 또는 편리함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성은 이동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민주의 또한 사민주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이동성과 사민주의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게끔 요구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동전화는 우리에게 이같은 이동적이며 사민주의적인 방식의 삶을 강제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질서체계를 상징하는 정보통신 매체이다.

키워드: 근대화, 이동전화, 이동성, 사민주의, 자본주의

---

### 1. 들어가는 말

오늘날 기술은 우리의 삶과 사회를 규정짓는 결정적 요소의 하나이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는 넓게는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작게는 우

---

\* 사민주의 (privatism)는 생경한 용어이기도 하고, 일견 개인주의 (individualism)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용어이나, 이 글에서 논의하는 부정적 의미의 개인주의, 또는 '비사회적 개인주의 (asocial individualism)'와 대비하기 위해 여기서는 사민주의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Lasch, 1979).

리의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반시설 내지는 필수품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나 접근은 상대적으로 박약하다. 이같은 현상은 비단 정보통신 기술뿐 아니라 기술일반에 대한 철학적 이해나 관심의 부족과 맥을 같이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에 제공해주는 막대한 편리함에 기인한다. 여기에는 또 기술에 대한 경제중심적, 도구적 사고방식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오늘날의 사회가 전반적으로 기술체제에 기반해 편제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기술을 우리 삶과 사회의 한 부분으로 별다른 의식 없이 받아들인다. 기술의 힘은 이럴 때 가장 큰 것이며, 기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은 우리 주변에 널리 확산된 정보통신 매체의 하나인 이동전화를 사회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우리 이해의 폭과 깊이를 넓혀보고자하는 시도이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기술로서, 그리고 산업으로서 1970년대부터 발전되어온 이동전화의 성공은 '이동통신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대단히 인상적인 것이다(Melody, 2001). 특히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부터 이동전화의 발전은 빠른 상승곡선을 그려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이동전화와 관련된 정책, 기술, 산업, 마케팅, 사업전략 등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진 반면, 이동전화의 사회적, 문화적 의미나 영향, 이동전화의 확산과정이나 이유, 사회문화적 배경, 이동전화의 사용행태 등등에 대한 연구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김신동, 2001; 나은영, 2001; 배진한, 2001; Leung & Wei, 1999; Palen, Salzman & Youngs, 2001). 이는 전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상황과 유사하다. 전화와 관련해서도 주로 네트워크 기술, 정책, 그리고 요금체계의 수립 등과 같은 산업적, 기술적 차원의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화나 이동전화에 대한 이같은 연구상황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그리고 다른 매체

에 관한 연구 내용이나 숫자와 비교해 볼 때 대단히 흥미로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렇듯 경제적, 산업적, 기술적 대상으로서의 연구는 많은 반면, 사회문화적 연구는 많지 않은 이동전화의 연구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이 연구의 초점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이동전화라는 매체를 연결해보는 것으로, 특히, 이동성(mobility)과 사민주의(privatism)라는 이동전화의 두 가지 커다란 특징을 그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본 것이다. 물론 이동전화의 보급상황이라든가, 이동성 그리고 사민주의적 양상은 나라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사례연구가 요구된다. 이 글은 그 같은 구체적 사례연구 이전에 이동전화라는 매체를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동전화는 이름 그대로 언제 어디서나 소통과 정보에 대한 접속을 가능케 한다는 뜻에서<sup>1)</sup> 이동성의 통신매체이며, 또한 개인적 통신수단을 넘어, 배타적이고 독립적인 소통행위의 영역, 곧 개인적, 사적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사민주의적 매체이다. 이동전화에서 볼 수 있는 이같은 이동성과 사민주의적 성격을 우리는 대체로 이동전화에 기본적으로 내재된 것, 예를 들면, 이동전화의 기술적 특성, 또는 편리함의 차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이동전화라는 명칭으로 보거나, 또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personal communication services: PCS)라는 말이 드러내주듯, 이동성이라든가 사민주의적인 측면이 이동전화라는

1) 언제 어디서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말은 물론 과장이다. 서로 다른 기술표준으로 인해 이동전화의 글로벌 로밍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최근 Nokia사는 월드폰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기술간에 상호호환되는 (유럽의 GSM 방식과 미국에서 일부 쓰이고 있는 TDMA 방식간) 단말기를 시판한다고 발표했다(박효상, 2002).

매체의 근본적 성격이라고 간주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이동성은 이동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인주의 또한 사인주의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니다. 끝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동성의 삶, 그리고 사인주의적 사회현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활하고 생각하게끔 요구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조건들이 존재한다.

이 글은 그러나 이동성과 사인주의가 이동전화의 사회적 함의를 설명하는 유익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개인적 차원, 공공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배경과 이유, 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생활양식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문제, 과시적 소비의 문제, 그리고 최근 들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개인적 안전과 위협의 문제—‘위험사회’라는<sup>2)</sup> 말도 있듯이—등도 이동전화의 사회적 함의를 설명할 수 있는 틀로써 동원될 수 있다(Beck, 1992). 그러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동전화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동성과 사인주의의 문제는 근현대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오늘날의 핵심적 사회현상의 일부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Berger, Berger & Kellner 1973; Harvey, 1989; Lash 1979; Lash, 2001; Lash & Urry, 1994; Sennet 1976; Swingedouw, 1993; Thrift, 1996; Urry, 2001). 앞서 지적했듯이, 이동전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대체로 정책, 기술, 산업, 기업전략 등등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왔다. 이들 연구는 물론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동전화의 성공(또는 실패)을 보여주는 각종의 통계숫자를 나열하는 것은 이동전화와 관련된 기술 그리고 산업적 성공(또는 실패) 이상의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동전화에 관련되어 이미 자명한

2) 이 위험사회론에서 벡은 범죄나 테러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산업재해나 환경오염 등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사회에서 범죄나 테러가 빠질 수는 없다.

결과 또는 자명한 양상들을 설명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일차원적인 것이다. 올라가 지적하듯이, 기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는 ‘기술의 개발과 사용에 연관되어 있는 새로운 사회적 측면을 드러냄’으로써 가능해진다(Woolgar, 1996, p. 100). 이러한 입장에서 이 글은 이동전화에 내재되어 있는 이동성과 사민주의라는 측면을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변화의 거시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매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동전화의 성공

정보통신 매체로서, 정보통신 기술로서,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으로서 이동전화의 역사는 눈부신 것이다. 이동전화라는 통신개념은 이미 1940년대 후반 AT&T 연구소에서(Bell Labs) 시작되었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상용화가 개시되었다(Huber, 1993). 그 이유는, 제대로 된 이동전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통신구역간의 주파수 및 통신의 조정이라든가, 세밀한 전파송신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무선통신 기술, 그리고 반도체 기술 등이, 7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일정한 수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Campbell-Smith, 1991).

또한, 초기의 이동전화는 비싼 단말기 가격과 휴대의 불편함 때문에 널리 보급되지 못했으며,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 자체도 ‘기존의 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보조 통신수단’ 정도로만 인식되었다(Campbell-Smith, 1991, p. 7). 그러나 이제 이동전화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될 정도로 널리 확산되어, ‘사치스러운 통신기술’에서 ‘필수적인 통신기술’로 그 성격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Leung & Wei, 1999, p. 223). 이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는 도중에도 전화를 사용하는 소

통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양상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매체로서 이동전화를 '20세기를 대표하는 전자제품의 하나'로 평가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Economist, 1992, p. 19).

이동전화의 기술 역시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과 확대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 1세대 아날로그 기술에서 출발해 2세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여기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동반하는 3세대 기술까지 이동전화 관련 기술은 혁신의 연속'이었다(Kano, 2000, p. 306). 디지털 이동전화는 아날로그 기술에 비해 효과적으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빠르고 우수한 접속율,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발전에 더해 간편한 휴대를 위한 더욱 더 가벼운 단말기, 그리고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전지까지 개발되는 등, 주변 관련기술까지 상당한 발전을 이룩했다. 여기에 소위 3세대 서비스라고 일컬어지는 국제 이동통신(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2000: IMT-2000) 서비스는 다양한 동영상과 인터넷 접속까지 그 서비스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sup>3)</sup> 물론 서로 다른 기술표준(예: CDMA, TDMA, GSM 등)으로 인해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은 전화기로 통화가 가능한 소위 글로벌 로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동통신 관련 기술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전진의 과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산업으로서의 이동통신 역시 그 발전은 놀랄만한 것이다. 1989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동통신은 이제 막 시장을 연 정도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국제 통신연맹(ITU)의 통계에 따르면, 이동전화의 사용자는 1990년 1천만에서 2001년 현재 7억2천5백만 명에 달함으로써 무려 7,000%가 넘

3) 3세대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NTT-DoCoMo나 우리나라의 CDMA-2000 동영상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나 아직 이것은 서비스 내용이나 기술의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2.5세대니 2.9세대니 하는 표현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다. 또 이미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CDMA 기술기반과 다른 비동기식 IMT-2000 체제는 출발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는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 2000년 한해에만 2억 명을 상회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동전화 사용자로 가입했다. 특히 보급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까지 인구 3명당 2명이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2003년에는 이동전화 사용자가 1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이동전화 산업부분에서 제 1인자를 달리고 있는 Nokia사는, 2004년에 이르러서는 PC보다 이동전화의 인터넷의 보다 보편적인 단말기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sup>4)</sup>

물론 이동전화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로밍의 문제, 음성통신 부분의 시장포화 상태,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특히 3세대 인터넷과 데이터 통신 부분에서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완결되지 않은 점 등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매체로서, 기술로서, 그리고 산업으로서 지금까지 이동전화의 보여준 확대발전상을 감안한다면, 이동전화의 확산 현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 3. 이동전화의 사회적 함의

앞에서 논의한대로 급격하게 확산보급되고 있는 이동전화의 사회적 함의를 살펴보는 일은 이동전화라는 매체를 오늘날의 사회적, 정치경제적 맥락과 연관시켜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당대의 사회적, 문화

4) 여기에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은 특히 개발도상국들에서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정전화통신망 대신에 새로운 기간정보통신망으로 대두하고 있는 점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건설기간, 그리고 공공 통신사업체의 비효율성을 감안한다면 이동통신망은 실로 매력적인 대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같은 이유로, 선진국에서도 이동전화 네트워크는 기존의 고정전화통신망에 이은 두 번째의 정보통신 기간시설로 빠르게 그 위상을 굳혀나가고 있다.

적, 경제적 맥락에서 각각의 정보통신 매체를 분석한 연구들은 매우 많다(Carey, 1989; Czitrom, 1982; Featherstone & Burrows, 1995; Fisher, 1988; Marchand, 1985; Marvin, 1988; Poster, 1990, 1995; Spigel, 1992a; Turkle, 1997). 이들 연구의 핵심은 각각의 정보통신 매체들은 항상 당대의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 연구자들은 제국주의적 이데올로기(특히 전신과 관련하여), 산업화와 도시화(특히 전화와 같은 텔레컴 부분과 관련하여), 근대성, 또는 현대의 새로운 주거환경과 생활양식(특히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방송과 관련하여), 그리고 포스트모더니티(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등등의 문제틀로서 각각의 정보통신 매체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틀의 연장선상에서, 이 글은 첫째, 이동전화라는 매체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고, 이어서 이동전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거시적 시각에서,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맥락과 연관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1) 이동하는 사적 통신의 매체 —이동전화의 성격<sup>5)</sup>

- 5) 이동성과 사민주의라는 문제틀은 윌리엄스(1992)가 방송의 역사적 등장을 설명하면서 동원한 '이동성의 사적 고착화 (mobile privatization)'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쓰인 것이다. 윌리엄스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같은 방송을,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산업자본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성 (교통과 통신기술로 일어난)과 개인주의화' (가정 위주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같은 두 가지의 상호모순적인 사회발전에 대한 기술적 대응으로 파악하고 있다(Spigel, 1992b, p. xxi). 즉, 방송은 각 가정에 외부세계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지리적 이동성을 대신해주고 각각의 개인들은 이러한 이동성을 방송을 통해 '가정'이라는 일정한 사적 공간에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이동전화는 본질적으로 1) 이동하는 통신매체이며 2) 사민주의적 매체이다. 그러나 이동전화든 아니든, 전화는 이미 그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전화는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넘어 우리를 다른 지점,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이동성을 제공해주고 있다(Cherry, 1977). 또한 전화 사용자들은 전화산업계의 의도와는 달리 일찍부터 사업상의 용도 이외에, 이미 사교의 수단이나 개인적 용도로 전화를 사용해왔다. 미국의 경우이긴 하지만, 오히려 전화사업자들은 전화가 등장한 초기에는 개인적 사교의 통신수단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을 억제해왔다(Fisher, 1988). 그러나 이들의 예측이나 억제에도 불구하고 전화는 일찍부터 개인적 통신수단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러한 이동성의 매체, 그리고 개인적인 성격의 매체인 전화를 이동전화는 한 단계 진일보시킨 것이다.

우선, 이동전화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또는 공적인 소통의 필요와 요구를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충족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동성의 매체이다. 커뮤니케이션의 입장에서, 이동통신 수단이 없을 경우, 이동할 때 우리는 소통중단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널리 보급되면서, 이같은 소통중단 상태는, 네트워크 조건이나 단말기로 인한 불통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극복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즉시에 정보를 획득하고 접속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동전화는 우리에게 장소와 시간의 격차를 두지 않고 정보에 접속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보행중이든 이동하는 자동차 내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 사무실내에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이동통신으로 인해 이제는 적어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한 특정한 장소라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또한 장소나 거리와 같은 물리적

---

이다.

제약을 넘는 소통의 길이 열렸다.<sup>6)</sup> 이에 따라 현장에 있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무선 원격업무가 상당 부분 가능해 짐으로써, 업무의 변경, 조정, 그리고 수행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되어 업무나 작업의 생산성이 일정부분 증가하게 되었다(Biersdorfer, 2000; Crockett, 2001; Lewis, 1988; Rysavy, 2000).

두번째로, 이동전화는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이다(Wooldridge, 1999, p. 27). 단순히 개인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뜻에서 ‘개인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이동전화를 통해 사용자가 소통행위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물론, 소통행위가 일어나는 공간과 영역까지도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도 포괄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동전화는 사용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은 물론 ‘개인적 자유를 확보해주는 매력적인 해방의 매체’이다(Wooldridge, p. 6).

이러한 자유와 해방의 기제인 이동전화는 그러나 사용자들이 자신을 공공의 장소에서의 대화나 만남, 사회적 교제나 간섭을 회피하면서, 자신만의 소통행위가 가능한 사적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서로에게 닫힌 배타적 소통의 매체로도 변환된다(나은영, 2001; Cameron, 2000; Holstein & Yang, 1999). 이동전화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 그리고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거나, 주변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다지 드문 광경이 아니다(Wooldridge, 1999, p. 35).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는 열어두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세계에 대해서는 닫힌’ 매체로 이동전

6) 유선망을 통한 컴퓨터나 전화통신은 움직이지 않는 유선망(단말기나 컴퓨터의 무게나 부피는 차치하고라도) 때문에 장소나 시간과 같은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이동통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혁명성은 대단한 것이다. 이같은 이동통신의 기술적 혁명성은 그러나 이동통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일상적 편리함 속에 묻혀 거의 인식되지 못한다(Kleinrock, 1996; Wooldridge, 1999 참조).

화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공공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는 사적 영역의 공격적 확장이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Cameron, 2000, pp. 129-130).<sup>7)</sup>

말할 나위 없이 이동전화는 공간적 시간적 장애의 극복과 개인적 소통과 영역의 확보라는 ‘새로운 행위의 자유’(liberty of action) 우리에게 부여해줌으로써 우리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매체이다(Cherry, 1977). 또한 이동전화는 우리의 소통의 영역을 넓혀줌으로써 삶의 유연함은 물론 우리로 하여금 효율적인 사회생활의 조정과 통제를 가능케 해주고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통신상의 물리적 장애를 최소화함으로써 소통을 쉽게 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다(Graham & Marvin, 1996, p. 115).

그러나 이동전화는 언제나 편리하고, 유연하며, 동시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과 조정의 범위를 넓혀주는 것은 아니다. 한 예로 이동전화는 공공의 공간에서 사용될 때, 예외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울드리지가 지적하듯, 이동전화는 가지고 온 가장 큰 폐해의 하나는 이전에는 전화로부터 자유로웠던 장소들에까지 이제는 전화가 침투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동전화는 다른 사람들의 ‘가청공간(acoustical space)’을 침해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자’로서 대두하고 있다(Palen, et al., 2001). 뿐만 아니라 이동전화는 사람들을 항상 연결시켜 놓음으로써 사실상 사용자들을 움직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상시적 연결고리인 이동전화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없애버림으로써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개인의

7)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할 것은 이 연구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이동전화의 사용행태를 이론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을 추구하거나 확보하려는 행위나 태도가 어떤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기원하고 있는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공공장소에서의 행위에 대한 이론은 Goffman, 1969 참조).

사사로운 시간과 공식적 업무시간, 업무용 공간과 사적인 공간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Economist, 1992, p. 22). 이동전화로 인해, 업무의 생산성이 이전보다 증대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간과 공간의 근본적 구분을 약화시키거나 소멸시킴으로써, 시간과 공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같은 부정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의 성공을 좌우한 결정적 요소는, 앞서 지적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과 연결, 업무의 조정, 사회적 활동의 조정, 개인적 안전과 심리적 안정 등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소통의 편리함, 업무와 일상생활의 효율성이다.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휴대한 채, 이동하면서 소통을 가능케 하는 이동전화는, 개인적인 또는 업무적인 용도로, 그리고 비상시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과 효율성의 근본에는 사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을 수 있다는 뜻에서 자유의 의미까지 포함되어있으며, 이는 또, 비상시에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뜻에서 사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의 차원에까지 연관되어 있다. 말할 나위 없이 세대별로, 개인별로 가입도, 사용도, 선호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자유와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요소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동전화에 대한 수요를 자극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National Research Council, 1997).

그러나 이같은 자유에 통제와 조정의 힘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통제와 조정이란, 커뮤니케이션의 관리(예: 선택 가능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들), 접근성의 통제(예: 발신자 번호 확인 서비스), 사회적 소통과 업무행위의 조정, 유연한 '시간관리(temporal autonomy)' 등등의 기능이나 행위를 의미한다(Palen, et al., 2001).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통제와 조정에는, 항상 어딘가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공간이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다.

인터넷의 사이버스페이스와 같이, 외부의 세계와 단절해 자신만의 영역과 공간을 구축할 수 있는 이 이동전화의 사용공간은 독립적이고, 개별화된 단자들의 영역이다. 이러한 개별적 공간은 보이지는 않으나 서로에게는 그 경계선이 분명한 각자의 개인적 영역을 의미한다. 이동전화의 이동성과 사민주의는 결국 이같은 자유의 측면, 그리고 조정과 통제의 힘 등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2) 거시적 맥락에서의 이동성과 사민주의

지금까지 논의해온 이동전화의 속성, 즉, 이동성과 사민주의라는 문제는 그러면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일상적인 삶의 공간적 배치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이동성은 본질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wingedouw, 1993, p. 313). 사민주의는 또한, 삶의 개인주의화, 공공적 참여와 시민적 의무감의 약화, 소멸되어 가는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축소나 왜곡 등과 같은 오늘날의 주요한 사회현상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말할 나위 없이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진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이동성을 증대시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보다 사민주의적이게 하는 특정한 정치경제적, 사회적 조건이 존재한다. 이동전화는 이렇듯 이동성과 사민주의적 삶으로 표현되는 오늘날의 사회적 질서를 상징하는 정보통신 기술체제이다.

### (1) 이동성

이동성은 기본적으로 사람, 물자, 자본, 그리고 정보의 흐름 등을 포괄하는 유동적 상황을 의미하며, 각각의 시대와 사회는 그에 대응하는 ‘특정한 교통,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이동성의 형태와 구조’를 가진다

(Swingedouw, 1993, p. 310). 이런 점에서, 이동성 자체는 근현대사회에  
만 특별한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이동성은 엔젠스버거가 지적하듯 ‘가  
장 오래되고 보편적인 인간활동의 하나’이다(Enzensberger, 1996, p.  
122).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근대에 들어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동성의 정도, 양상, 내용, 그리고 의미 등이 달라지면서 이동성의 문제  
는 이제 그 차원이 달라지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근대화의 과정은  
전 지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기술체제를 지속적으로 개발  
해온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술체제는 사람, 자본, 상품, 그리고 정  
보 등을 ‘개별 사회 내부적으로는 물론 국경을 넘어 외부 세계에까지  
점차 신속하게 이전’시키고 있다(Urry, 2001, p. 191). 여기에 다국적  
기업으로 상징되는 최근의 소위 지구화라는 것을 감안한 경제와 국제관  
계의 변화를 고려한다면, ‘현대사회는 곧 이동성의 사회’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Lash & Urry, 1994, p. 252). 물론, 이동성의 정도와 내용  
은 지역마다, 또 나라마다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한 차이에도 불  
구하고, 쓰리프트의 말대로, 그 이유가 직업이 되었든, 교육이 되었든,  
이민이 되었든, 관광여행이 되었든, 또는 사회적 계층상승이 되었든, ‘이  
동성은 오늘날 우리 존재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Thrift,  
1996, p. 286).

비판적 정치경제학의 입장에서 이같은 이동성은 근본적으로 돈, 생산  
수단, 상품 그리고 노동력을 포괄하는 자본의 순환과 축적에 연관되어  
있으며, 이 자본의 순환과 축적은 오늘날 세계시장—지구화—을 가능하  
게 하는 핵심적인 조건의 하나이다(Lash & Urry, 1994). 이같은 자본의  
원활한 순환과 축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생산공장의 이동이나, 자본  
의 이동, 시장의 확대 등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의 확립  
이 선결과제이다. 이동성은 바로 이러한 체제운용의 결과적 현상이다.

결국, 이동성은 자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자본을 둘러싸고 있는 일정한 제약들을 벗어나 자유롭게 위해서’ 의도적으로 조직되는 것이다(Swingedouw, 1993, p. 324).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동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동적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비가 지적하듯,

세계시장을 건설하고, 공간적 장벽을 줄이고, 시간의 극복을 통해 공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욕구는 자본주의 사회 어디에나 존재한다. 사회의 공간적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공간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변화와 개발은 자본주의 운용의 기본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의 역사는 지리적 변화의 역사이기도 하다. 기차, 전신, 자동차, 무선통신과 전화, 제트비행기, 텔레비전의 등장과 발전, 그리고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혁명은 바로 이러한 역사의 일부이다(Harvey, 1989, p. 232).

가속화와 증대된 이동성을 통한 공간의 조정과 통제는 역동적 팽창운동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다. 교통과 통신과 같이 ‘이동을 위한 체제는 장소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며, 거리와 공간의 장애로 인해 일어나는 불필요한 마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Swingedouw, 1993, p. 306). 이같은 이동의 기술체제는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의 과정을 가속화하고 일관된 과정으로(acceleration and synchronization) 만듦으로써 자본주의가 원활하게 운용되게끔 하는 물적 기반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동성은 가속화, 그리고 일관과정화와 함께 자본주의 운용의 사회적 경제적 원칙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동성이란 결국 시간적 과정의 가속화와 공간적 확장을 포괄하는 ‘공간의 통제’라고 (command over space) 정리할 수 있다

(Swingedouw, 1993). 정보통신 기술은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통제를 위한 기술체제의 핵심적 부분, 즉, 오늘날의 경제적, 사회적 과정의 이동성, 가속화, 그리고 일관성을 이루기 위한 물리적 기반시설의(mobility infrastructure) 하나이다. 이동전화는 무엇보다 이 같은 이동성과 가속화, 그리고 일관성을 구축하는데 요긴한 정보통신 기술의 하나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동전화는 현대 자본주의의 원활한 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한 부분인 셈이다.

## (2) 사인주의

사인주의란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의미있는 개인적인 영역을 건설하고자 하는 우리의 행위, 사고, 그리고 욕망 등을 지칭한다. 사인주의적 현상은 다른 무엇보다 현대 사회에 팽배한 개인적, 사적 영역과 관료 체제, 기술경제 체제, 정치체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공적 영역과의 갈등관계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이는 특히 오늘날의 개별화된 삶의 조건, 특히 개개의 구성원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불투명한 공공적 영역의 문제와 깊이 연관된 사회적 현상이다(Berger, Berger & Kellner, 1973).

이같은 사회적 긴장관계는 한마디로 정치적, 관료적, 기술경제적 ‘체제(system)와 우리의 사회적 삶(social life-world)과의 분열’로 정식화해 볼 수 있다(Calhoun, 1991, p. 97). 이러한 분열은 말할 나위 없이 어제 오늘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근대화라는 전 지구를 관철하는 긴 역사적, 사회적 과정의 산물이다. 버거 등(Berger, et al., 1973)의 연구에 따르면, 근대화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한다. 첫째는 기술과 경제의 변화(예: 산업자본주의의 등장), 둘째는 사회적 기구와 체제의 변화(예: 근대국가의 탄생과 민주주의의 확대), 셋째는 이 둘과 연관된 집단적 개인적 의식의 변화가 (예: 개인주의의 심화) 그것이다. 매



우 당연히, 이 변화의 과정은 지역별로, 각 나라별로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근대화는 보다 정밀하게 따져볼 때, 버거 등이 요약한 것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Beck, 1992; Kumar, 1995). 그러나 큰 틀에서 볼 때, 근대화는 새로운 사회적 삶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으로 이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이전의 시대와 불연속적인, 상이한 사회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근대화는 모순의 과정이다. 근대화는 한편으로는 기술과 경제체제에 기반한,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과 같은 거대 관료기구의 건설 과정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낭만주의나 환경운동 같은, 기술경제에 기반한 사회변화에 저항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같이 근대화는 양날의 칼을 가진, 즉, '계몽과 소외의 지속적인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는 연속적 변화를 의미한다(Shields, 1996). 근대화는 이렇게 도구적 이성에 기반한 기술경제적 질서의 구축과 지속적인 자아실현과 유기적 공동체의 추구라는 정반대의 대립적인 과정이다(Kumar, 1995).

달리 말하면 '근대사회의 개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를 경험하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각 개인들은 복잡다기한 의미와 맞닥뜨리게 된다'(Berger, et al., 1973, p. 78). 이러한 맞닥뜨림의 기본적 양상의 하나가 관료기구와 기술경제 체제로 대표되는 공공적 영역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대변되는 사적 영역의 대립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이러한 대립은 반드시 근대적 현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일어난 엄청난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종교 등등의 변화에 따라 이같은 공공적 영역과 개인적 영역의 대립이 특히 문체의 상황으로 대두된 것이다(Sennett, 1976). 이는 또 반드시 서구 사회에 특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근대화라는 과정 자체가 이미 전세계적 과정이듯이, 근대화의 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대립은, 근대화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지면서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비서구 사회에서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공공적 영역은 복잡다기한 사회적 관계를 가져오며, 바로 이러한 복잡다기함 때문에 공공적 영역은 이해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존재로 각 개인에게 인식된다. 뿐만 아니라, 정치체제나 기술경제 기구들이 점차 관료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성격과 내용을 갖추게 됨에 따라 이들과 각 개인들은 상호 소외적인 관계를 맺게된다. 이같은 소외의 조건들은 버거 등이 지칭한 바, 우리에게 ‘형이상학적 의미에서의 고향상실’의 상황을 불러일으킨다(Berger, et al., 1973). 이러한 고향상실의 상황에서 근대인들은 공공적 거대체제와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근대인들에게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불투명한 공공적 영역을 떠나, 자기에게 의미있는 관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존재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유스러운 개인적 영역을 추구하고 건설해가는 일은 자연스러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사회 내에서 개개인들에게 의미있는 중심으로 기능할 수 있는' 사적영역의 추구는 근대인에게 당연한 길이다(Berger, et al., 1973, p. 66). 이러한 조건 속에 놓여있는 근대인들에게 있어 개인적인 통제와 조정이 가능한 커뮤니케이션 행위,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통한 개인적인 자유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은 이들의 사적 영역 건설에 결정적인 요소이다. 이동전화는 근대인들에게 이같은 통제와 자유의 계기를 동시에 부여해주는 하나의 기제로서 등장하는 것이다.

#### 4. 결론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는 당대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동전화에 내재되어 있는 이동성과 사인주의

는 현대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글은 그러나, 이동전화의 사용이 자본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거나 배타적인 소통의 영역을 구축하려는 행위라는 측면으로만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초점은, 이동전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이유가 급격히 증대되는 오늘날의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동전화를 단순히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 정도로 인식한다거나, 이동성과 사민주의라는 이동전화의 특성을 기계적인 것, 또는 이동전화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편리함의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선, 이동성과 사민주의는 이동전화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특성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아무리 기술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정치적 현상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Woolgar, 1996, p. 88). 왜냐하면 사회적 정치적 요인들은 기술체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사회와 기술의 밀접한 연관성은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기술의 사회적 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기술체제의 건설에 기술과 경제 이외의 논리로 개입할 수 있는 초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술중심적인 이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둘째로, 이동성과 사민주의는 이동전화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매우 편리하고 효율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대체로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편리함, 또는 효율이라는 것도 기실은 일정부분 사회가 점차 기술체제적으로 재편되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교환관계의 산물이다. 즉 기술은 편리함, 유용함, 선택의 자유, 자기과시, 또는 자기만족과 같은 형태로 각자에게 일정한 자율적 영역을 보장하는 한편, 사회는 점차 기술적 통제체제로 개편되어 간다(Kovel, 1978).<sup>8)</sup>

8) 정보통신 기술과 강화되는 사회감시체제에 대한 논의는 그러나 이러한 교환관계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는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에 기반하여 재편성되어가고 있다. 이동전화가 우리에게 주는 사적 공간의 편리함이나 유용함은 이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개편에 따라 반대급부로 주어지는 산물이다. 이러한 교환관계 속에서 기술은 점차 일상화되고, 이러한 일상적 기술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물리적 제약과 사회적 병폐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한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일상화된 기술의 내면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의 운용을 위한 교환체제가 일정부분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에 대한 인식은 기술에 대한 비판과 반성의 기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셋째, 이동전화의 사용을 사회적 예의의 문제로 보는 것 역시 매우 일차원적인 관찰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동전화로 인해 공공적 공간과 개인적 공간과의 구분이 매우 불분명해진다는 점이다. 업무의 시간, 개인의 시간이 서로 혼재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이동전화를 아무 곳에서나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내밀한 사적 영역을 외부세계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셈이다. 편리함과 유용함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이러한 행위들은 공공적인 공간을 사용자 개인의 사사로운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사회적 광장이 축소되면서 대신에 사적 영역이 공격적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의 기제로서, 이동전화는 ‘사회적 삶의 상황적 지형도’를 바꾸어버리는 치환의 기술(technology of displacement)이라고도 할 수 있다(Meyrowitz, 1985).

지금까지의 논의는 이동전화,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일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깊이 고려해야할 중요한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

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사회감시 체제는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따라 강제적으로 확산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는 일정부분 자발적인 사회적 동의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동전화는 주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강제와 동의의 상호작용이 바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 삶이 맺고 있는 교환관계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동전화의 정책은 대체로 기술, 산업, 사업, 시장 전략 등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이동전화의 폭발적 성장과 확산에 비추어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동전화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 그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 맞추어 등장한 것만은 아니다. 이동전화의 발전과 확산에는 오늘날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정치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변화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경제적 기술적 목표만이 정보통신 정책의 기본적 요소가 아니듯, 정보통신 정책담당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상업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차원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술과 사업전략, 정책의 세세한 측면, 시장전략 등등에 쏟는 시간과 노력만큼, 이동전화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한다.

오늘날 증가하는 이동성과 사민주의적 사회의 양상은, 근본적으로 사회의 '바탕이 되는 기본 체제(root systems)'가 약화되고 붕괴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려있다(Putnam, 1995). 이는 또한 시민사회의 필수적 덕목인 공공적 참여의 정도와 내용이 점차 약화되어 가는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삶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이라는 목표와는 대립되는 모순적인 조건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통신 기술과 매체의 정책에 기술적이거나 경제적인 내용만을 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논의해온 정치경제적, 사회 문화적 문제들을 포괄하는 구조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 ● 참고문헌

- 김신동 (2001). 호모 텔레포니쿠스의 등장: 이동전화 확산에 영향을 준 사회문화적 요인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5-2호, 62-85.
- 나은영 (2001). 이동전화 채택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전화 커뮤니케이션의

- 매체적 속성에 관한 연구: 개인중심성, 즉시성 및 직접성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4호, 189-228.
- 박효상 (2002.1.14). 디지털 융복합화 '무한자유' 세계가 온다. 《한겨레신문》, 17.
- 배진한 (2001). 이동전화의 총족과 대인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의 이동전화의 적합성 인식—세대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 45-4호, 150-188.
- Beck, U. (1992). *Risk society-towards a new modernity*. London: Sage.
- Berger, P., Berger, B., & Kellner, H. (1973). *The homeless mind: modernization and consciousness*. New York: Random House.
- Biersdorfer, J. (2000. November 16). Staying wired on the go and doing more work. *The New York Times* [On-line], Available: www.lexis-nexis.com.
- Calhoun, C. (1991). Indirect relationships and imagined communities: Large-scale integr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everyday life. In P. Bourdieu & J. Coleman (Eds.), *Social theory for a changing society* (pp. 95-121). Boulder: Westview Press.
- Campbell-Smith, D. (1991. October 5). Telecommunications. *Economist Survey*, 5-36.
- Cameron, D. (2000) Small Incivilities. *Critical Quarterly*, 42(2), 127-131.
- Carey, J. (1989). *Communication as culture: Essays on media and society*. Boston: Unwin Hyman.
- Cherry, C. (1977). The telephone system: creator of mobility and social change. In I. de Sola Pool (Ed.). *The social impact of the telephone* (pp. 112-126). Cambridge: The MIT Press.
- Crockett, R. (2001. August 27). Wireless Work. *Business Week* [On-line], Available: www.businessweek.com.
- Czitrom, D. (1982). *Media and american mind: From Morse and McLuhan*.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Economist (1992. May 30). *Mobile Telephones*, 19-22.
- Enzensberger, H. (1996). A Theory of Tourism. *New German Critique*, 68,

117-135.

- Featherstone, M., & Burrows, R. (Eds.). (1995). *Cyberspace cyberbodies cyberpunk*. London: Sage.
- Fisher, C. (1988). Touch someone: The telephone industry discovers sociability. *Technology and Culture*, 29(1), 32-61.
- Goffman, E. (1969). *Behavior in public places: Notes on the social organization of gatherings*. London: Greenwood.
- Graham, S., & Marvin, S. (1996).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London: Routledge.
- Harvey, 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 Holstein, W., & Yang, D. (1999, December 13). Moving beyond the PC. *US News & World Report*, 48.
- Huber, P. (1993). Telephones, competition, and the candice-coated monopoly. *Regulation*, 2, 34-43.
- Kano, S. (2000). Technical innovations, standardization and regional comparison-a case study in mobile communications. *Telecommunications Policy*, 24, 305-321.
- Kleinrock, L. (1996). Nomadicity: Anytime, anywhere in disconnected world. *Mobile Networks and Applications*, 1(4), 351-357.
- Kovel, J. (1978). Rationalization and the family. *Telos*, 37, 5-21.
- Kumar, K. (1995). *From post-industrial to post-modern society*. Oxford: Blackwell.
- Lasch, C. (1979) *The culture of narcissism*. New York: WW Norton & Co..
- Lash, S. (2001). Technological Forms of Life. *Theory, Culture & Society*, 18(1), 105-120.
- Lash, S., & Urry, J. (1994). *Economies of signs & space*. London: Sage.
- Leung, L., & Wei, R. (1999). Who are the mobile phone have-nots?. *New Media & Society*, 1(2), 209-226.
- Lewis, J. (1988, October 10). The portable executive. *Business Week*, 102-112.
- Marchand, R. (1985). *Advertising the american dream: Making way for modernity 1920-1940*.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rvin, C. (1988). *When old technologies were new*.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elody, W. (2001). Assessing highly imperfect mobile market. *Telecommunications Policy*, 25, 1-3.
- Meyrowitz, J. (1985). *No sense of place: The impact of electronic media on soci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ational Research Council (1997). *The evolution of untethered communication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Palen, L., Salzman, M., & Youngs, E. (2001). Discovery and integration of mobile communications in everyday life. *Personal and Ubiquitous Computing*, 5, 109-122.
- Poster, M. (1990). *Mode of information*.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Poster, M. (1995). Postmodern virtualities. In M. Featherstone & R. Burrows (Eds), *Cyberspace cyberbodies cyberpunk* (pp. 79-95). London: Sage.
- Putnam,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7.
- Rysavy, P. (2000. October 30). The road to a wireless future. *Network Computing*, 135-148.
- Sennett, R. (1976).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WW Norton and Co..
- Shields, R. (Ed.). (1996). *Cultures of Internet*. London: Sage.
- Spigel, L. (1992a). *Make room for TV*.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Spigel, L. (1992b). *Introduction*. In R. Williams (1992)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 Swingedouw, E. (1993). Communication, mobility and the struggle for power over space. In G. Gianopoulos & A. Gillespie (Ed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novation in Europe* (pp. 305-325). London: Bellhaven Press.
- Thrift, N. (1996). *Spatial formations*. London: Sage.
- Turkle, S. (1977). *Life on the screen: Identity in the age of the Internet*. New York: Touchstone.



- Urry, J. (2001). Mobile sociology.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1), 185-203.
- Williams, R. (1992).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Hanover: Wesleyan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A. (1999. October 9). Telecommunications. *Economist Survey*, 5-36.
- Woolgar, S. (1996). Technologies as cultural artefacts. In W. Dutton (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Visions and realities* (pp. 87-10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최초 투고 2002. 3. 18, 최종원고 제출 2002. 4. 24)

## Mobility and Privatism: Social Dimensions of the Mobile Phone

Pyungho Kim

(Dankook University)

The mobile phone is a medium of mobility in the sense that it makes possible anytime, anywhere communications. It is also a medium of privatism as it opens for the users an exclusive communication space that marks private territoriality. These two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mobile phone are usually interpreted as part of its technical properties and convenience it provides to the users. But mobility is offered not just for the sake of mobility, nor privatism is for the sake of privatism. There are certain social and political economic conditions that enhance and even force us to be mobile and private. The mobile phone symbolizes this kind of world order in which mobility and privatism condition our social life-world.

Keywords: capitalism, mobile phone, mobility, modernization, privatism